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 경제안보 Review

## 경제안보 분석

미국발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수출통제와 관세의 결합

## 경제안보 현안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 경제안보 현안

중국 반도체 굴기 평가 및 업계 현황

##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25% 관세)·핵심광물(협상) 포고문 발표
- 미국-대만 무역합의…관세 15%·2,500억불 대미 직접투자·TSMC 증설 등
- 美 행정부, 핵심광물 자립위해 자국 희토류 기업에 2조 3,200억원 투입
-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관련 프레임워크 마련 및 보복 관세 철회 발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 목차

[26-3호]

## I. 경제안보 분석

이재원 선임전문관

### 미국발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수출통제와 관세의 결합

01

1. 개요
2. 미국의 AI 전략과 H200칩 수출 허용
3. H200에 대한 관세 부과 및 확대 계획
4. 평가 및 전망

## II. 경제안보 현안

황지현 전문관

###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10

1. 개요
2. 최근 미국의 기후 · 에너지 정책 동향
3. 여타국 동향 및 시사점

## III. 경제안보 현안

안수린 전문관

### 중국 반도체 굽기 평가 및 업계 현황

16

1. 개요
2. 미국의 對中 반도체 규제와 중국의 대응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과와 한계
4. 평가 및 시사점

## IV.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25% 관세)·핵심광물(협상) 포고문 발표
- 미국-대만 무역합의…관세 15%·2,500억불 대미 직접투자·TSMC 증설 등
- 美 행정부, 핵심광물 자립위해 자국 희토류 기업에 2조 3,200억원 투입
-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관련 프레임워크 마련 및 보복 관세 철회 발표

# 미국발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수출통제와 관세의 결합

이재원 선임전문관

## 요약

### ■ 2026년 1월 14일 및 15일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인 H200의 대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동시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조합을 발표

- ▶ 대중국 수출 조건 : 미국 내수 우선 충족, 군사적 전용 금지, 수출 물량 제한(미국 수입 물량의 50% 이하) 등을 적용하고 특히, 보안·성능 검증과 관세 부과를 위해 해당 칩이 반드시 미국을 경유하여 미국 내 독립된 연구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 ▶ 관세 부과 : 1단계로 H200 등 특정 칩에 25% 관세를 1월 15일부로 부과하고 2단계로 각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를 확대하되, 각 단계에서 미국 내 투자 기업에는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

### ■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첨단기술 확산을 통제하던 안보 논리에서 벗어나, 기술 우위를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통치술로 평가 가능

- ▶ 기술 종속 유도 : 중국이 화웨이 독자 칩(Ascend 910C) 개발에 자원을 쏟는 대신, 성능이 우수한 미국산 H200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
- ▶ 제조업 재건 : 관세라는 위협 수단을 활용하여 동맹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미국 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모색

### ■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수출통제와 관세 결합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전략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공급망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

- ▶ 전문가들은 수출 물량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가능한 물량이 100만개 수준으로 지나치게 많아 중국의 AI 연산 능력이 250% 급증하고 H200을 대량으로 연결 시 수출이 금지된 최신 블랙웰 칩에 버금가는 성능 실현 가능성을 우려
- ▶ 대만 TSMC 등에서 생산한 AI 반도체를 미국으로 가져와 관세를 부과하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물류 구조로 가격 상승 및 글로벌 AI 혁신 지연 문제도 제기

### ■ 향후 첨단 시스템 반도체 외 메모리 반도체 및 레거시 반도체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각국에 관세 부과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기술 동맹 결속력이 약화되고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로 보복할 가능성도 우려

- ▶ 미국 우선주의 투자가 대만과 한국 등 동맹의 투자 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결속력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HBM)의 필수 불가결적 위상 활용 필요
- ▶ 중국이 2027년까지 전세계 28nm 이상 성숙 공정 생산 능력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덤팡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 1. 개요

- 최근 미국이 AI 반도체인 엔비디아 H200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미국 AI 경쟁 전략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 증대
  -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2년 10월 7일 AI용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통제 대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 장비 확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통제, 국가별 AI칩 수출한도 설정(AI diffusion rule) 등을 시행
  -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5월 기존의 국가별 AI칩 수출한도를 폐지시켰으며, 2025년 8월 엔비디아 H20(중국용 저성능칩)의 대중국 수출을 조건부(해당 매출의 15% 공유)로 허용
  - ▶ 최근 고성능 H200과 관련해서는 2025년 1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26년 1월 15일 관보를 통해 공식화
- 한편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관세를 수출이 허용된 H200에도 적용하여 미국의 수출통제와 관세 조치가 뒤섞이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
  - ▶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도약 및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활용하고, 이와 별개로 중국산 저가 품목으로부터 미국 시장과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부과
  - ▶ 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7일 미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쇠락의 원인으로 대만을 언급하고 수입 반도체 관세율을 25%, 50%, 심지어 100%까지 고려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미국은 반도체 제조 부문(foundry) 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세를 검토
  - ▶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25%를 2026년 1월 15일부로 부과하면서, 수출이 허용된 H200에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출통제 완화와 관세 부과를 결합
  - ▶ 더 나아가 미국은 각국과의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 가중
- 동 보고서는 미국이 AI 경쟁 전략에서 수출통제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H200의 수출 허용 과정에서 해당 품목이 미국을 경유하도록 의무화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2. 미국의 AI 전략과 H200칩 수출 허용

###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23일 발표된 AI 행동계획을 통해 미국산 AI 기술 스택 수출을 촉진하고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및 동맹의 협조를 강구한다는 계획을 마련

※ AI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미국적 가치 보호, 오픈소스 모델 장려 등) ▲인프라(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 구축 ▲AI 외교 및 안보 주도(미국산 AI 기술 수출 촉진 등)으로 구성

- ▶ 미국은 자국의 전체 AI 기술 스택(full AI technology stack)을 미국의 AI 동맹에 참여하려는 모든 국가에 수출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동맹국들이 미국의 경쟁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선언(The White House, 2025)
- ▶ 특히 수출통제 측면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 통제의 허점 차단에 집중하고 적대국이 미국산 기술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
  - 첨단 AI 칩에 위치 검증 기능을 탑재하여 해당 칩이 우려국가(countries of concern)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미국 내 정보기관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
- ▶ 또한 미국은 판매를 금지한 기술을 동맹국들이 대신 판매(backfill)하는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고, 만약 동맹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나 2차 관세(secondary tariffs) 등을 사용하여 동맹국의 정책을 미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명시

### ■ AI 행동계획 상 수출통제 강화 방침에도 미국은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보안 및 성능 검증을 위해 미국으로의 경유를 의무화

- ▶ 2026년 1월 15일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특정 첨단 칩(H200 등)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에서 건별(case-by-case review) 심사로 전환(Federal Register, 2026.1.15.)

\* BIS는 건별 심사 대상인 특정 첨단 칩의 성능 조건으로는 총연산성능(Total Processing Performance, TPP) 21,000점 미만, DRAM 대역폭 6,500 GB/s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엔비디아 H200 및 AMD MI325X를 심사 대상으로 명시

- ▶ 건별 심사 요건으로 미국 내수 충족, 군사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수출량 제한, 보안 및 성능 검증 등 다수 요건을 충족토록 요구(Federal Register, 2026.1.15.; 김지혜, 2026.1.15.)
  - 미국 내수 충족 : 미국 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컴퓨팅 역량의 역전 방지(AI 연산 능력 측면에서 중국보다 물량 우위 유지)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 공정 점유율 방어(중국 등이 대량 주문으로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점유하지 않도록 방지)
  - 물량 제한 : 중국(마카오 포함)으로의 수출 물량이 미국 내 고객에게 배송된 총 물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보안 및 성능 검증 : 수출자는 최종 수취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금지된 사용자의 원격 접근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입수하여 BIS에 제출

\* 원격접근차단 조치: 물리적으로 칩을 수령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서버를 통해 해당 칩의 연산 능력을 빌려 쓰는 원격 사용자까지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예컨대 최종 수취인이 해당 칩을 사용하여 제3자에게 원격으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as-a-Service)사업을 한다면, 특정국의 원격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목록을 제공하고, AI 모델이 학습한 결과물 등인 가중치(weight)의 이전 등을 금지

- 미국 경유 : 미국 내 위치한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성능 사양 검증을 받고, 그 인증서를 BIS에 제출하도록 요구

※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상무부가 허가 발급을 총괄하지만,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ACN)도 심사에 관여하며, 특히 이번 H200 수출은 “지역 안정(Regional Stability, RS)” 통제 항목에 해당하여, 국무부가 외교 정책 및 지역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게 관리

### 3. H200에 대한 관세 부과 및 확대 계획

**■ 미 백악관은 2026년 1월 14일에 발표된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지난 2025년 4월 개시된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The White House, 2026.1.14.)**

- ▶ 2025년 4월 개시된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는 2025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조사는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수입량과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협한다고 평가
  - 미국 내 생산 능력 부족 :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약 1/4을 소비하지만, 국내에서 완전히 제조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외국 공급망에 심각하게 의존
  - 핵심 인프라 및 국방 필수 요소 : 반도체는 미사일, 드론, 레이더 등 현대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통신, 에너지, 의료 등 16개 핵심 인프라 분야에 필수적
  - AI와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 특히 AI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는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칩의 수입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안보 위협이 된다고 판단

**■ 후속 조치로 두 단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H200 등 특정 첨단 반도체 품목에 25% 관세를 1월 15일부터 부과하고, 2단계로 각국과의 반도체 협상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The White House, 2026.1.14.)**

- ▶ 1단계로 즉각적 선별 관세 및 무역 협상 병행 : 2026년 1월 15일부터 특정 첨단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즉시 25%의 관세 부과
  - \* 포고문은 3개 관세코드(8473.30, 8471.50, 8471.80)를 명시하고 있으며, 팩트시트(Factsheet)에서는 엔비디아의 H200 및 AMD의 MI325X에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
  - 다만 해당 칩이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 연구개발, 스타트업 지원, 공공 부문 사용 등 미국 기술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용도로 수입될 경우 관세 미적용
  - 또한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외국과 기존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하거나 새롭게 추진하고, 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한 후 그 상황을 9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
- ▶ 2단계로 광범위한 관세 확대 및 상쇄 프로그램 도입 :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후 시행되는 조치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포함
  - 광범위한 관세(broader tariffs) 부과 : 1단계의 좁은 범위를 넘어선 반도체 전반에 대해 상당한 (significant)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

-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이나 공급망의 특정 부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관세 우대 혜택(preferential tariff treatment)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

## 4. 평가 및 전망

### ■ 미국의 H200 대중국 수출 허용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본토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의 일환

- ▶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5% 매출 공유를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 반도체 수출을 허용한 바 있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막았던 기술의 빗장을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여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제시
- ▶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설계 역량 등 미국산 기술에 의존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직접 통제하면서도, 수출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H20 매출 공유 사례보다 더 공세적인 접근법을 모색하면서 H200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미국이 H200 수출을 허용한 배경에는 중국의 자체 칩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중국이 화웨이 Ascend 910C 등 독자 칩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대신 성능이 확실한 미국산 H200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Chan and Wang, 2025.8.4.; Reuters, 2025.12.9.; DeBlanc-Knowles, 2025.12.10.)
  - 한편 미국 연방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수출세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제3자 검증 의무화라는 안보 강화 조치를 바탕으로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 반입되도록 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Fritz, 2026.1.24)

#### [엔비디아 반도체와 화웨이 최신 반도체 910C 비교]

모델	시장	TPP(총연산성능) 점수	메모리 규격	메모리 대역폭
Nvidia H100	전세계	~16,000	HBM3 80GB	3,350 GB/s
Nvidia H20	중국	< 4,800	HBM3 96GB	4,000 GB/s
<b>Nvidia H200</b>	<b>전세계</b>	<b>&lt; 15,800</b>	<b>HBM3e 141GB</b>	<b>4,800 GB/s</b>
Nvidia B300	전세계	> 60,000	HBM3e 288GB	8,000 GB/s
Huawei 910C	중국	비공개	HBM2e(추정)	비공개

출처: MUFG(2025.12.), Nvidia 웹사이트

\* H200은 세계 최초로 HBM3e(5세대 고대역폭메모리)를 탑재하여 메모리 용량을 H100의 80GB에서 141GB로, 대역폭을 3,350 GB/s에서 4,800 GB/s로 끌어올렸으며, 실시간 서비스에 요구되는 LLM 추론 속도를 H100 대비 최대 2배 향상

- ▶ 종합하면 미국의 AI 및 반도체 전략은 경제와 분리된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이 결합된 안보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미국은 H200 수출을 통한 수익 및 반도체 관세 부과를 바탕으로 자국의 제조 역량을 재구축하고 동맹국에게는 투자를 요구하며, 경쟁국에게는 비용을 전가하는 순환 구조를 모색

## ■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수출통제와 관세 결합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전략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공급망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

- ▶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수출 허용 및 관세부과 조치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로 중국의 기술 도약을 저지시키고, 이와 별도로 수입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저가 품목으로부터 미국 시장과 기업 경쟁력을 보호한 접근과는 상반되는 조치로 평가
- ▶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와 관세의 새로운 결합은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려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에게 승리한다는 전략적 목적 달성을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미국 생태계에 묶어두려는 전략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
  -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국가안보를 돈과 맞바꾼 위험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1월 2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AI감시법안(AI Overwatch Act)」도 가결 처리
  - 전문가들은 수출 물량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가능한 물량이 100만개 수준으로 지나치게 많아 중국의 AI 연산 능력을 250% 급증시킬 수 있고(대량 연결 시 수출이 금지된 최신 블랙웰 칩에 버금가는 성능 실현도 가능), 텐센트 등 주요 중국 구매기업이 중국군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전용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DeBlanc-Knowles, 2025.12.10.; McGuire, 2026.1.14.)
- ▶ 대만 TSMC 등에서 생산한 AI 반도체를 미국으로 가져와 관세를 부과하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물류 구조는 최종 AI 서비스 가격을 상승시켜 글로벌 AI 혁신 속도를 저지시킬 가능성도 우려

## ■ 첨단 시스템 반도체 외 첨단 메모리 반도체 및 레거시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각국에 관세 부과를 앞세우려다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기술 동맹 결속력이 약화되고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로 보복할 가능성도 우려

- ▶ 미국 우선주의 투자가 대만과 한국 등 동맹의 투자 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결속력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가지는 필수 불가결적 위상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 다대
  - 반도체 관세 조치가 부과된 2026년 1월 15일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TSMC 등 대만 기업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도중에 생산 능력의 250%, 완공 후 15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상호관세율 15%에 합의
  -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7일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은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에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

- 동맹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아닌 미국 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동맹국에 과도한 투자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 우려
  - 다만, 한국의 HBM이 미국의 대체 불가결한 자산이고 미국의 관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빅테크에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결속의 약화보다는 협상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
- ▶ 한편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계속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을 미국산 기술에 의존시키려는 이번 H200 수출 허용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중국이 우위를 갖는 레거시 반도체 시장을 활용하여 미국과 계속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 불배제
- 최근 중국은 주요 기업(ByteDance, Alibaba, Tencent 등)에 H200 40만장 수입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장 신설 및 증설 승인 시 중국산 장비 50% 이상 사용 필수 조건을 요구하는 등 독자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촉진 (Reuters, 2025.12.31.; 2026.1.28.)
  - 한편 중국이 2027년까지 전세계 28nm 이상 성숙 공정 생산 능력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덤플링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Ezell, 2025.5.7.)

## 참고문헌

- Chan, Kyle and Wang, Ray. (2025.8.4.). Leashing Chinese AI Needs Smart Chip Controls. Rand Corporation. <https://www.rand.org/pubs/commentary/2025/08/leashing-chinese-ai-needs-smart-chip-controls.html>
- DeBlanc-Knowles, Tess. (2025.12.10.). Why exporting advanced chips to China endangers US AI leadership.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why-exporting-advanced-chips-to-china-endangers-us-ai-leadership/>
- Ezell, Stephen. (2025.5.7.). Comments to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Regarding Its Section 232 Investigation of Semiconductor Imports.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https://itif.org/publications/2025/05/07/comments-regarding-section-232-investigation-of-semiconductor-imports/>
- Federal Register. (2026.1.15.). Revision to License Review Policy for Advanced Computing Commodities. National Archive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1/15/2026-00789/revision-to-license-review-policy-for-advanced-computing-commodities>
- Fritz, Johannes. (2026.1.24.). The Import Tariff That Acts Like and Export Tax. Zeitgeist Series Briefing #81. Global Trade Alert. <https://globaltradealert.org/reports/The-Import-Tariff-That-Acts-Like-an-Export-Tax>
- McGuire, Chris. (2026.1.14.). The New AI Chip Export Policy to China: Strategically Incoherent and Unenforceabl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articles/new-ai-chip-export-policy-china-strategically-incoherent-and-unenforceable>
- MUFG. (2025.12.). Computational Power is Core US Competitive Advantage. The AI Chart Weekly. [https://www.mufgamericas.com/sites/default/files/document/2025-12/AI\\_Chart\\_Weekly\\_12\\_12\\_Chip\\_Wars.pdf](https://www.mufgamericas.com/sites/default/files/document/2025-12/AI_Chart_Weekly_12_12_Chip_Wars.pdf)
- Reuters. (2025.12.9.). US to allow Nvidia H200 chip shipments to China, Trump say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s-open-up-exports-nvidia-h200-chips-china-semafor-reports-2025-12-08/#:~:text=December%209%202025%59%20AM%20PSTUpdated%20December%209%2C%202025&text=WASHINGTON%2C%20Dec%208%20\(Reuters\)%20%2D%20The%20United%20States%20will%20allow%20Nvidia's%20\(NVDA\).](https://www.reuters.com/world/china/us-open-up-exports-nvidia-h200-chips-china-semafor-reports-2025-12-08/#:~:text=December%209%202025%59%20AM%20PSTUpdated%20December%209%2C%202025&text=WASHINGTON%2C%20Dec%208%20(Reuters)%20%2D%20The%20United%20States%20will%20allow%20Nvidia's%20(NVDA).)
- Reuters. (2025.12.31.). Exclusive: China mandates 50% domestic equipment rule for chipmakers, sources say.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mandates-50-domestic-equipment-rule-chipmakers-sources-say-2025-12-30/>
- Reuters. (2026.1.28.). Exclusive: China gives nod to ByteDance, Alibaba and Tencent to buy Nvidia's H200 chips – source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gives-green-light-importing-first-batch-nvidias-h200-ai-chips-sources-say-2026-01-28/>
- The White House. (2025.).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7/Americas-AI-Action-Plan.pdf>
- Nvidia. <https://www.nvidia.com/en-us/data-center/h100/>
- Nvidia. <https://www.nvidia.com/en-us/data-center/h200/>
- 김지혜. (2026.1.15.). 미 상무부, 중국향 일부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무역안보24. 무역안보관리원. <https://www.kosti.or.kr/synap/skin/doc.html?fn=6456439a87fb0ddaf0c30904a0dcf070&rs=/jnrepo/uploads/synap/result/202601>

###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황지현 전문관

## 1. 개요

- 美 트럼프 대통령은 2025.1월 취임 직후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지난 1년간 화석연료 생산 촉진,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반(反)기후 정책 기조 지속 공고화
  - ▶ 특히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66개 국제기구 및 협약을 탈퇴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재건·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반기후·친화석연료 행보 지속
- 국제 기후 거버넌스 내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나타나는 한편, EU, 중국 등 여타국의 주도권 확보를 통한 협력 구도 재편 전망
  - ▶ 미국의 다자체제 이탈로 기후·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질서의 균열과 함께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질서 재구축이 진행될 전망

## 2. 최근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

- 트럼프 행정부는 2025.1월 파리협정 탈퇴에 이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총 66개 국제기구 및 협약 탈퇴를 발표(1.7.)
  -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핵심으로, 미국이 동 협약을 탈퇴한다고 발표하자 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미국의 후퇴는 엄청난 자충수(colossal own goal)라며 비판
    - 이외에도 총 31개 유엔 기구와 35개 비유엔 기구를 탈퇴하였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 예정 / 익일(1.8.) 재무부도 녹색기후기금(GCF) 탈퇴 및 이사회 사임 발표
  - ※ 미국은 2025.3월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서 탈퇴하며, 재정 지원 약속도 철회
- ▶ 국무부는 1.7일 언론 성명에서 추가 국제기구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미국의 다자체제 탈퇴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공식적인 국제기구·협약 탈퇴 이전에도 글로벌 주요 기후·환경 의제 채택 반대, 총회 불참 등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태도 견지

- ▶ 트럼프 행정부는 2025.8월 및 10월 성명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 중인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도입 찬성국들에 보복 가능성 경고 /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IMO는 동 조치 채택 논의 1년 연기

\*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온실가스 집약도의 점진적 감축 및 목표 미달성시 비용 부과 등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결합한 규제 내용 포함

- ▶ 2025.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에 美 정부 대표단이 불참하며 국제 기후 외교에서 미국의 공백 공식화
  - 美 행정부의 COP 불참은 1995년 COP 출범 이후 최초로,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모호한 기후 목표를 위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표단 미파견 입장 발표

##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보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미국 및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추진

※ 에너지 안보는 2025년 캐나다 G7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포함되며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우선순위로 부상 / 미국은 금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에너지 전환이 아닌 '에너지 풍요'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실무그룹 운영

-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미국의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등 행정명령을 통해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 확대 조치 발표

- 이후 2025.4월 미국 내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2025.9월 6억 2,500만불 규모 투자를 통해 석탄발전 확대 등 지원

※ 크리스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은 “석탄은 미국의 재산업화와 AI 경쟁에서의 승리에 필수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상기 자금 지원 발표

- ▶ 최근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1.3.) 및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개방 구상 또한 美 기업 주도의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을 통해 글로벌 원유 시장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

※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기간 장악하여 유가를 배럴당 50불 수준으로 낮추는 구상을 계획 중(WSJ, 2026.1.7.)

- ▶ 일본, EU, 한국 등 주요국과의 관세 합의에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협상 조건에 포함하며, 무역 협상을 화석연료 수출·사용 촉진 수단으로 활용

- 무역 협상과 화석연료 수출을 연계하여 세계 각국의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지배력 확대

## [미국과 주요국의 에너지 분야 무역 합의 사항]

국가	내용
일본	-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연간 70억불 구매 -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등 분야 총 5,500억불 투자 - 알래스카 LNG 오프테이크 계약 신규 체결 모색
EU	- 2028년까지 미국산 LNG·석유·원자력 7,500억불 구매
한국	- 4년간 미국산 에너지 1,000억불 구매
인도네시아	- LPG, 원유, 휘발유 등 미국산 에너지 150억불 구매

자료: The White House(2025.7.22., 2025.7.23., 2025.8.21., 2025.9.5.), 산업통상자원부(2025.7.30.) 등

### ■ 전기차 의무화 폐지,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등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금융적 지원 축소

- ▶ ‘미국의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2025.1.20.)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를 선언한 이후, 2025.12월 자동차 제조사의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연기관차 중심의 정책 전환 공식화
  -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전환을 위해 마련한 기업평균연비 기준을 내연기관차가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사실상의 전기차 의무를 철폐
- ▶ 트럼프 대통령은 2025.7월 예산조정법(OBBBA)에 서명하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친환경차 세액공제 등 IRA 기반 보조금 조기 폐지

※ 이러한 정책 전환은 미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 기조의 후퇴 신호로 작용하며, 글로벌 전기차·배터리·청정에너지 시장에서 기업의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공급망 재편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

## 3. 여타국 동향 및 시사점

### ■ EU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역내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해 일부 정책의 추진 속도를 완화하는 동향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2026.1월), 유럽 기후법 개정 추진(2040 감축목표 설정 등 포함) 등 기후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규제 완화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2025.2월, 12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완화, 역외 탄소크레딧 허용 등 산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속도 일부 조정

### ■ 중국은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기후 정책을 지속 추진·강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기술 선도를 통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관찰

- ▶ 기후변화 대응을 자국 이미지 제고 및 소프트파워 강화 수단으로 인식하여 국제 기후·에너지 협력에 적극 참여
- ▶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과정에서 중국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며 글로벌 영향력 지속 강화 / 태양광, 전기차 등 중국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내 협력 확대 중

## ■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은 국제협력의 기존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제협력 구도 및 주도권 경쟁의 재편으로 이어질 전망

- ▶ 미국의 국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이탈에 따라 다자협력의 동력이 약화되고 주요 에너지 생산·소비국의 협력 이행 유인도 감소할 가능성 / 이와 함께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
- ▶ 기후 리더십 공백을 EU 등 주요국이 메우면서 기존의 다자협력 기조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는 한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기후 의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병존
- ▶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은 단기적 정책 수정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국가 간 협력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 가능

## 참고문헌

- 강택구·박혜윤·홍밍더·심창섭. (2025). 트럼프 2.0 미·중 기후 및 재생에너지 쟁점과 시사점. KEI 정책보고서 2025-04. 한국환경연구원.
- 신정수. (2025). 2025년 세계 에너지정책 이슈와 단기 전망.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5-24호. 에너지경제 연구원.
-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 (2025).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 방향과 정책적 함의. 기후·에너지 포커스 2025-09호.
- 유아름. (2026).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경제안보 Review 26-2 경제안보 외교센터.
- 임산호. (2025). 주요국(일본-미국, EU-미국) 무역협상 공동성명 결과 분석. 경제안보 Review 25-18. 경제안보 외교센터.
- 정귀희. (202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대내외 영향.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5-4호. 에너지경제연구원.
- 최용호. (2025).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경제안보 Review 25-15. 경제안보외교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2025.7.30.).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 중앙일보. (2025.12.4.). “바이든 그린뉴딜은 사기”…트럼프, 휘발유차 연비규제 완화.
- 문화일보. (2025.11.11.). 룰라 “기후변화 부정자에 패배를”…COP30 개막식서 트럼프 저격.
- The White House. (2025.1.20.).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 The White House. (2025.1.20.). Unleashing American Energy.
- The White House. (2025.7.22.). Joint Statement on Framework for United States-Indonesia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 The White House. (2025.7.2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Unprecedented U.S.-Japan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 The White House. (2025.8.21.). Joint Statement on a United States-European Union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 The White House. (2025.9.5.).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lements A Historic U.S.-Japan Framework Agreement.
- The White House. (2025.12.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the Reset of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Standards.
- U.S. Department of Energy. (2025.9.29.). Energy Department Announces \$625 Million Investment to Reinvigorate and Expand America's Coal Industry.
- CNN. (2025.11.4.). How the US could shape the COP30 climate summit without even being there.
- The New York Times. (2025.8.27.). Trump, With Tariffs and Threats, Tries to Strong-Arm Nations to Retreat on Climate Goals.
- Wall Street Journal (WSJ). (2026.1.7.). Trump Team Works Up Sweeping Plan to Control Venezuelan Oil for Years to Come.

### 저자 소개

황지현 | jhhwang24@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경제안보 Review 25-9호, 2025)”,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경제안보 Review 24-18호, 2024)”,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KDI, 2022)”가 있다.

# 중국 반도체 굴기 평가 및 업계 현황

안수린 전문관

## 1. 개요

### ■ 중국은 2015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이후, 정책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 지속

- ▶ 단순한 수요 시장을 넘어, 성숙공정(mature nodes)<sup>1)</sup>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점진적으로 생산·수출 비중 확대 중
  - ※ ('24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 시장의 약 30% 차지하며, 성숙공정을 중심으로 생산·수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2025년 연 단위 공식 자료 부재
- ▶ 다만, 중국 반도체 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첨단 공정·핵심 장비·설계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 존재
  - 최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 중국 반도체 산업은 외부 기술 제약과 내부 국산화 압력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국면

## 2. 미국의 對中 반도체 규제와 중국의 대응

### ■ (美 규제 동향) 美 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첨단 기술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단계적·전방위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 및 확대

- ※ (트럼프 1기) 반도체를 국가안보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화웨이 제재(EAR Entity List 등)를 기점으로 민간 기업을 포함한 포괄적 수출통제 체계 본격화 → (바이든 행정부) '22.10월, '23.10월, '24.12월 등의 조치를 통해 공정·장비·인력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차단 전략으로 확장

- ▶ (주요 규제 대상) ▲ 고성능 반도체(AI·HPC<sup>2)</sup> 칩) ▲ 첨단 공정용 제조 장비 ▲ EDA 소프트웨어<sup>3)</sup>
  - ▲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3국 생산품 등
    - 특히 성능 기준에 기반한 통제와 역외적용(FDPR)을 통해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첨단 공정 진입과 기술 축적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방향으로 전개

<sup>1)</sup> 성숙공정은 28nm 이상 범용 공정을 의미하며, 첨단 공정(7nm 이하) 대비 자동차·산업용 등 범용 수요에 주로 활용

<sup>2)</sup>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sup>3)</sup>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EDA)은 반도체 회로 설계·검증·레이아웃 등을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 ■ (中 대응 전략) 中 정부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sup>\*</sup>으로 유지하며 대응

- \* 중국은 「중국제조 2025」('15년)와 「14·5 규획」('21년)을 통해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성장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공정 자립과 핵심 기술 내재화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
- ▶ 중국은 첨단 기술 규제에 대응해 ▲ 성숙공정 및 내수 중심의 산업 운용 ▲ 핵심 공정·장비·소재 분야의 국산화 강화 ▲ 원자재 및 법·제도적 수단의 활용을 결합한 복합적 대응체계 구축

##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과와 한계

### ■ 美 제재 이후에도 화웨이는 HiSilicon을 통해 첨단 칩(기린 시리즈) 설계를 주도하고, SMIC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설계-제조-패키징 전반을 연결하며,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을 ‘성과’로 보여주는 핵심 역할 수행

- ▶ 화웨이와 SMIC의 7nm급 반도체 생산은 중국이 첨단 공정에 대해 기술적 구현 가능성 자체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 다만, 해당 공정은 EUV 노광 장비 없이 DUV 기반 멀티패터닝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공정 단계 증가에 따른 ▲ 수율 저하 ▲ 생산 비용 상승 ▲ 반복 양산의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한계 동반

### ■ 다만, 화웨이 중심 성과와 달리, 장비·소재·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다수 중 기업들이 기술 격차와 생산성 한계에 직면

- ▶ ('24~'25년 반도체 분야별 현황) ※ 中 반도체 기업별 현황은 <별첨> 참조
  - (IC 설계) 美 EDA 수출통제로 첨단 공정 설계에는 제약이 지속되나, 성숙공정·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한적 접근 또는 국산·우회 툴 활용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설계 활동 유지
  - (파운드리) SMIC社가 내수와 성숙공정을 기반으로 세계 3위 파운드리(글로벌 점유율 5.1%)로 부상
  - (낸드 / D램) 범용 D램의 한·중 기술 격차는 업계 평가 기준 약 3년, HBM은 공정·패키징·생태계 격차로 인해 6년内外로 추정
  - (팹 / 생산능력) 글로벌 파운드리팹 설비 투자에서 최대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첨단 공정으로의 기술적 도약이라기 보다 성숙공정 중심의 생산능력 확대 및 내수 수요 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 성격
  - (장비(국산화)) 신규 장비 50% 이상 국내 장비 사용 규정에 따라 중국 Naura社가 세계 5위 (매출 합산 기준) 장비 기업으로 도약
  - (리소그래피) 국산 DUV 장비의 시험 생산 수준 진입 및 DUV 레이저·소재 국산화 연구 등 장비 자립 노력 지속 / EUV 시제품 개발 및 시험 생산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 생산 수준 미달

- (AI 칩 / 시스템 반도체) AI 칩 수요 확대로 (美 첨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캠브리콘, 알리바바 등 국내 제조사들은 정부 지원 아래 AI 칩 개발 생산과 생산 능력 확충 추진 및 기술 자립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자국산 AI 반도체 우선 사용 정책도 확대 추세

## ■ 인민대 중앙금융연구소 「10년의 도약: 미국 각계각층의 ‘중국제조 2025’평가」에 따르면, 전체 계획에 포함된 260개 정량 지표 중 86% 이상<sup>\*</sup> 달성

- \* 전력설비·전기차·태양광·고속철 등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반도체·항공기·고급장비 등에서는 여전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
- ▶ (성과)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 성숙공정 생산 능력 확대 ▲ 메모리·후공정 분야의 외형 성장 ▲ 국산 장비 채택률 제고 등
- (한계) EUV 노광장비, 최첨단 공정 기술, 고급 EDA 등 핵심 요소에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지속

## 4. 평가 및 시사점

### ■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 첨단공정·AI·시스템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는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성숙공정·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적 확대와 내수 대체에 집중하는 선별적·차등적 자립 전략 강화에 초점

- ▶ 글로벌 공급망 내 중저가·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中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에도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소지 존재
- 中 반도체 산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상대적 위상이 점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
- 특히 화웨이가 금년 출시한 Pura 80 Pro에 중국산 시스템온칩(SoC), D램, 낸드를 전면 적용한 사례는 중국의 기술 자립이 개별 공정을 넘어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

### ■ 미국의 對中 반도체 규제는 中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

- ▶ 화웨이는 중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기술고문 및 컨트롤타워 역할로 중국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구심점으로 부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안정적 대량 생산체계로 전환되기에에는 기술적·경제적 제약이 상존

※ (화웨이) 반도체 자립화 및 내재화 강화 전략인 'Spare Tire Plan 2.0'을 추진중 / ▲ 심천시에 전(前)공정 생산 파운드리 건설 ▲ 자회사 SiCarrier 중심의 반도체 제조장비 자립화 ▲ 자회사 HiSilicon 중심의 차세대 반도체 (SiC 전력칩<sup>4)</sup>) 개발중.

<sup>4)</sup> SiC 전력반도체는 고전압·고온·고효율 특성을 지닌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주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활용

## 별첨

## 중국 반도체 기업별 현황('25년 기준)

구분	기업명	현황	특징
반도체 제조	SMIC (파운드리)	中 최대 파운드리, 14nm 및 7nm 공정 <sup>5)</sup> 양산	화웨이 기린9000s 칩에 적용 /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약 5%(3위)
	Huahong Grace (파운드리)	특수 공정(전력반도체, RF 등) 특화, 12인치 공장에서 90nm~55nm 공정 양산	
반도체 장비	CXMT	- DRAM 분야 중국 내 공백 해소, 글로벌 점유율 약 4.6% - (현황) 동 사의 HBM은 시제품 및 고객 인증 단계로, 글로벌 선두 업체 수준의 대량 양산 체계는 미확립	상금 美 Entity List 미등재
	YMTC	- 200단 후반 3D NAND 양산 - (현황) 낸드 이외 DRAM 및 HBM 생산 계획으로 CXMT와의 경쟁 불가피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 약 10% 수준(출하 기준) <sup>6)</sup>
칩 설계	Naura	식각·증착 등 전(前) 공정 장비 국산화 주도	국산 장비 채택률 40% 달성에 기여 ※ 글로벌 반도체 관련 장비 매출 집계 ('25년): Naura 5위, AMEC 13위, SMEE 20위 - '22년 Naura만 8위로 글로벌 Top 10에 포함
	AMEC	식각·박막 증착 장비 분야 경쟁력 확보	
후공정 (패키징)	SiCarrier <sup>7)</sup>	자사 설계 소프트웨어 2종 및 계측장비 분야에서의 자사 제품 시현	화웨이 자회사
	TankeBlue	SiC 웨이퍼 생산, 전력반도체 소재 강화	
	Xunion	SiC·GaN(질화갈륨) 기반 디바이스 개발	
	HiSilicon	스마트폰 AP(Kirin 9000s), AI 가속기 Ascend 시리즈, 서버/네트워크 SoC 등을 설계	화웨이 팩리스 조직
	JCET	중국 최대, 세계 3위(점유율 약 12~15%) 패키징 기업	

출처 : KOSTEC (2025) 기반 작성

<sup>5)</sup> SMIC의 7nm 공정은 EUV 미도입 상태에서 DUV의 다중 패터닝 기반으로 구현되어, 수율·비용 측면에서 상업적 제약

<sup>6)</sup> YMTC 점유율은 글로벌 NAND 출하량 기준(생산 규모) 추정치로, 매출 기준(기술력·시장 지위) 점유율과는 상이

<sup>7)</sup> '22년 설립 이후 박막·증착·광학 검사·계측 등 30여종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개발, '23년 말에는 DUV와 SAQP 기반 특허를 확보하며 EUV 없이도 5나노급 성능 달성을 목표로 장비 라인업 확대

### 참고문헌

- 아주경제(2025.12.22.), 「중국제조 2025 10년, 中의 성공과 美의 실패」,  
<https://www.ajunews.com/view/20251220181337044>
- 파이낸셜뉴스(2026.2.1.), 반도체 굴기 中, 장비사 3곳 글로벌 톱20에 올랐다  
<fnnews.com/news/202602011750118147>
- 테크월드 (2026.1.10.), 너무 빠른 중국 반도체 성장세... 반도체 수퍼사이클에도 웃을 수가 없다.  
<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09>
- 한국경제(2026.2.3.), 미국 제재가 키운 중국 반도체 괴물...中 팝리스 돈 쓸어담는다  
<hankyung.com/article/202602029489i>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5.8월), 「중국 반도체산업의 도전과 성과」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2025), vol.7 「중국 반도체산업의 굴기와 혁신성과」

### 저자 소개

안수린 | srann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기술 경쟁, 신흥·핵심기술, 수출통제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의 대북제재 I & II편,” “엔비디아 AI 칩 중국 수출 재개 동향(경제안보리뷰 25-16호)”, “미국의 중국산 드론 규제 동향(경제안보리뷰 25-14호)”, “미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경제안보리뷰 25-10호)”, ”오픈소스 하드웨어(RISC-V) 관련 동향(경제안보리뷰 24-8호)“, “美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및 강화 조치(경제안보리뷰 23-19호)” 등이 있다.

##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6.1.14.~2026.1.28.)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25% 관세)·핵심광물(협상) 포고문 발표(1.14.)

- ▶ (반도체) 미국으로 수입되어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관련 장비, 파생제품 포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1.15.)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
  - ※ 단, 미국 내 데이터센터, R&D, 스타트업, 민간·상업·공공 부문 등에 사용 시 관세 면제
  - (대상) 특정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고성능 반도체 및 장비 (예. 엔비디아 H200)
  - (평가) 대미 수출 반도체 품목 다수가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면제된바 우리 대미 수출에 대한 영향은 추가 분석 필요
- ▶ (핵심광물) 232조 근거로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상무부·USTR에게 동맹국과 가격 하한 등 조건으로 수입 조정 협상을 지시
  - (평가) 반도체와 달리 즉각적인 관세 도입보다 협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미측이 제안한 협상의 구체사항 조기 파악 필요

출처: 한국경제, 뉴스1, KBS, 연합뉴스 (1.15.) 등

### ■ 미국-대만 무역합의…관세 15%·2,500억불 대미 직접투자·TSMC 증설 등(1.15.)

- ▶ (주요 내용) 미국-대만은 상호관세를 20%→15%로 인하하는 무역협상에 합의(1.15.), 대만은 TSMC를 포함한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의 2,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정부 신용보증 2,500억 달러 등 총 5,0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 제공 계획 발표
  - 미국은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에 무관세 반도체 수입을 허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 TSMC는 애리조나에서 기존 6개 외에 4~5개 공장 증설 검토 중
- \* 신규 건설 중에는 생산능력의 최대 2.5배, 완공 후엔 1.5배까지 관세 면제. 초과 수입분엔 우대율 적용
- ▶ (평가) 금번 합의는 미국의 반도체 내재화 전략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에는 작년 한국-미국 무역협상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보장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미국과 관련 협의가 필요로 해질 것으로 평가. 끝.

\*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경우, 반도체 교역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하기로 합의

출처: 연합뉴스, 경향신문, Financial Times (1.16.) 등

## ■ 美 행정부, 핵심광물 자립위해 자국 희토류 기업에 2조 3,200억원 투입(1.24.)

- ▶ (주요 내용) 美 행정부는 자국 희토류 기업 USA 레어어스(USA Rare Earth, USAR)\* 지분 10%를 확보하고 16억 달러(2조 3,200억원)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

\* 텍사스주에서 희토류 광산(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 약 2,213톤 매장) 개발 중이며 2028년 생산을 목표

- 美 행정부는 USAR 지분 10%(약 3억 달러)를 인수하고, 이와 별도로 「CHIPS 법」에 따라 상무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3억 달러의 USAR 부채 자금을 지원할 예정
- 美 행정부는 별도의 1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
- ▶ (평가) 동 USAR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美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 / 최근 美 정부는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 중
  - ▲(반도체) 인텔 지분 10% 확보 ▲(핵심광물) MP 머터리얼즈(희토류) 지분 15%, 리튬 아메리카(리튬) 5% 확보 ▲(철강) US 스틸 황금주(주요 의사 결정 참여 권한) 확보 등

출처: FT(1.24.), CNBC(1.25.), 조선비즈(1.25.), Mining.Com(1.26.) 등

## ■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관련 프레임워크 마련 및 보복 관세 철회 발표(1.21.)

- ▶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추진 발언 이후 촉발된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관한 프레임워크 마련 및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대한 보복 관세 철회를 발표하면서 다소 완화
  - 트럼프는 21일 오전 다보스 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우리(미국)의 영토’라고 부르며 병합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마르크 류터 NATO 총장과 회담 후 입장 선회
  - 프레임워크의 구체 내용은 협상 중이나 ▲그린란드 내 미국 군사력 확대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의 그린란드 배치 ▲그린란드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 보장 ▲중국, 러시아 등 국가의 광물권 접근 배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언론 보도
  - 덴마크 총리는 22일 성명에서 주권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협상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EU 의회도 美-EU 무역협정에 대한 비준 투표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
- ▶ (평가) 협상 상대를 극단적인 선택지로 몰아넣은 뒤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재현되었다는 분석으로, 결과적으로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골든돔 설치와 광물자원 접근권 보장은 이미 미국이 기존 협정 등을 통해 가능한 권한으로 금번 발표가 정치적으로 포장되었다는 평가도 존재

출처: Bloomberg, WSJ, Axios, 조선일보, 동아일보, 마켓in (1.22., 1.23.) 등

##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1.14.	[무역] 中 해관총서, 2025 수출입 통계 발표 : 수출액 6.1% 증가 및 수입액 0.5% 증가
	1.15.	[구리] 中 연구보고서 공유 플랫폼 삼개피장보고, '25년 구리 부문 실적 전망 보고서 발표 : LME 구리 평균 가격 톤당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상하이 구리 평균 가격 톤당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등
	1.16.	[정책] 中 인민은행, 신규 통화·금융정책 발표 : ▲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수단 금리 0.25%p 인하 ▲ 1조 위안 규모 민영기업 재대출 신설 ▲ 상업용 부동산 구매 대출 시 최소 계약금 비율 30% 일괄 인하 등
	1.20.	[경제] 中 국가통계국, 2025년 경제지표 발표 : 국내총생산(GDP) 140조 1,879위안으로 전년 대비 5% 성장
	1.20.	[투자] 中 재정부, 민간투자 확대 및 소비 진작 계획 발표
	1.20.	[디스플레이] 中 시장총국, 中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 TCL의 조원광전 지분 인수 기업결합 안건 공시
	1.20.	[투자] 中 상무부, 전국 대외투자 협력 및 대외원조 관련 업무회의 개최
	1.20.	[경영] 주중미국상공회의소, 중국 경영환경 조사 보고서 발표 : 최근 수년간 이익을 기록한 기업 비중 전반적으로 증가, 손실 기업 비율 지속 감소 중
	1.22.	[공업·정보화] 中 공신부, '25년 공업·정보화 분야 성과 발표 : ▲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 전년 대비 5.9% 증가 ▲ 제조업 부가가치 16년 연속 세계 1위 ▲ 경제성장에 대한 공업·정보화 분야 기여도 40% 이상 등 * (규모이상 공업기업) 연간 주력업종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기업
	1.22.	[설비] 中 발개위, 설비 교체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하달 : ▲ 공업 ▲ 에너지·전력 ▲ 교육 ▲ 의료 ▲ 곡물·식용유 가공 등 9개 분야 약 4,500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4,600억 위안 이상 투자 견인 전망
미국	1.23.	[공급망]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 중앙 국유기업에 대해 핵심 분야 중심의 중대 프로젝트 와 상징적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 (핵심 분야) ▲ 산업망 취약점 보안 ▲ 인프라 구축 ▲ 에너지·자원 공급 보장 ▲ 산업 선도적 배치 등
	1.23.	[지재권] 中 국가지재권국, '25년 지재권 분야 성과 발표 :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증가율이 전체 특허 증가율의 2.2% 상회(▲ 정보기술 관리방법 ▲ 컴퓨터 기술 ▲ 의학분야 특허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며 ▲ AI 유효 특허 수는 세계 선두권)
	1.14.	[반도체] 美 Trump 대통령, 반도체 232조 관세 관련 포고문 및 팩트시트 발표 : (주요 내용) ▲ Annex 열거 품목에 대해 즉시 25% 관세 부과 ▲ 협상 지속 추진
	1.14.	[핵심광물] 美 Trump 대통령, 핵심광물 232조 관세 관련 포고문 및 팩트시트 발표 : (주요 내용) 가공된 핵심광물 및 그 파생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국가안보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한 협정 협상 추진
	1.14.	[기업결합] 美 연방거래위원회(FTC),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 거래규모기준 발표 : '25년 1억 2,640만 달러 → '26년 1억 3,390만 달러로 조정

국가	일자	내용
미국	1.15.	[무역합의] 美 상무부, 미-대만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 : (주요 내용) ▲상호관세 20%→15% ▲對美 직접 투자(2천5백억 불) 및 신용보증 제공 (2천5백억 불) ▲對美 투자 반도체 업체 대상 혜택 제공(232조 관세 면제) 등
	1.16.	[반도체] 美 상무부 장관, 마이크론社 최첨단 메모리 제조 단지 착공식 참석 및 메모리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1.17.	[관세] 美 Trump 대통령, 그린란드 관련 유럽 8개국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의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1.19.	[관세] 美 Greer USTR, IEEPA 관세 소송 패소 판결시 바로 다음 날부터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예고(NYT) : 대안으로 301조, 232조, 122조, 338조 등 언급
	1.21.	[AI]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인공지능과 대분기(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Great Divergence)” 제하 보고서 발표
	1.21.	[반도체] 美 하원 외교위, AI Overwatch 법 통과(the Hill) : (주요 내용) 중국·러시아·이란 등 우려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 시 의회가 검토하고 필요시 차단하는 권한 부여
	1.22.	[쿠팡] Reuters, 쿠팡 주요 투자자들(그린오크스, 알티미터)의 301조 조사 요청 및 ISDS 중재 제기 청원 보도
	1.23.	[쿠팡] Businesswire, 쿠팡 투자자들의 301조 조사개시 청원서 공개
	1.26.	[관세] 美 Trump 대통령, 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 발표 : 한국에 대한 반도체, 목재, 의약품 232조 관세 및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 발표
	1.16.	[국제협력] 日-이탈리아 정상, 핵심광물·공급망 등 협력 합의 :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우주 기술 분야 ▲유사시 LNG 상호 융통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 협력 강화 합의
일본	1.16.	[AI]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AI 협력에 관한 첫 공동성명 합의(닛케이) : 아세안 소버린(Sovereign) AI 출시에 대해 일본이 공동개발·인재 양성 부문에서 협력 및 캄보디아 등 현지 언어 LLM 개발 및 아세안 AI 시장 확대 지원
	1.19.	[관세] 소프트뱅크, 일미 관세합의 대미 투융자 제1호 프로젝트 관여 가능성 부상(로이터재팬)
	1.27.	[관세] 일미 관세 합의에 근거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의 유력후보로 미국 내 인공다이아 생산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주목(로이터)
EU	1.14.	[FTA] EU 집행위, 회원국 및 유럽의회 대상 비공개 브리핑에서 EU-인도 정상회담(1.27) 계기 EU-인도 TTA 협상 타결 선언을 목표로 협상 중이라 발표(Politico)
	1.19.	[유로그룹] 유로재무장관회의 개최 : 유로그룹 우선순위(관세, 과잉생산, 러·우 전쟁, 기술·안보·광물등의 높은 대외 의존도 등) 및 유럽중앙은행 부총재 후보 등 논의
	1.20.	[사이버보안] EU 집행위, EU 핵심 ICT 공급망 보호 및 사이버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이버보안 패키지 발표

국가	일자	내용
EU	1.20.	[다보스 포럼] EU 집행위원장,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 참석 및 연설 : ▲ 지정학적 변화와 유럽의 독립성 ▲ 무역다변화 ▲ EU 경제 현실 ▲ 기술 등 언급
	1.20.	[바이오] 유럽의회, 필수의약품의 공급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약품법에 대한 의회 입장 채택
	1.21.	[디지털] EU 집행위,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 발표 : 첨단 광 및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업자 투자여건 개선 목적
	1.27.	[FTA] EU-인도 FTA 협상 타결
캐나다	1.15.	[무역] 캐나다·중국, 석유, 가스, 우라늄 수출 확대 로드맵 합의(The Globe and Mail)
	1.15.	[항공] 캐 봄바디어, 생산능력 확대 위해 몬트리올에 신규 항공기 제조공장 건설 계획(The Globe and Mail)
	1.20.	[다보스 포럼] 카니 총리, 다보스 포럼 참석 및 기조연설 : 규범 기반 국제질서 쇠퇴와 중견국 대응 관련 메시지 전달
독일	1.19.	[대미투자] 독일경제연구소(IW),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1년간 독일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및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보고서 발표
	1.19.	[전기차] 독일 정부, 올해부터 개인 대상 전기차 보조금 재도입
오스트리아	1.20.	[식량] 제3차 비엔나 식량안보 우호그룹 회의 개최
핀란드	1.16.	[기업] 핀란드 통계청, '25년 핀란드 기업 파산 건수 3,906건으로 '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1.19.	[경제] IMF, 핀란드 경제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표 : 핀란드가 재정 적자를 매년 GDP 대비 0.5%만큼 축소할 것을 권고
베트남	1.16.	[반도체] 베트남 비엣텔 그룹, 자체 반도체 칩 제조 공장 착공
인도	1.14.	[무역] 2025년 인도의 대중 수출 증가에도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 기록(Business Standard)
	1.19.	[국방] 인도-UAE 국방 협력 의향서(LOI) 서명 : 양국관계를 전략적 국방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
	1.23.	[반도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반도체 인센티브 제도 개편 검토(Economic Times) : 기존 환급 중심 지원 방식을 지분, 부채 등 투자형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중
	1.23.	[반도체] 인도 반도체 산업, 중국 및 홍콩 수입에 의존(Economic Times)
	1.27.	[FTA] 인도-EU FTA 타결(The Hindu) : (주요 내용) 인도 수출의 약 99% 이상, EU 수출의 약 96.6% 규모 품목 관세 철폐 또는 감면
콩고민주공화국	1.14.	[구리] 민주콩고 국영 광업기업 제카민(Gecamines), 자사 지분 구리 10만 톤 미국 수출

##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영국	1.15.	[풍력] 英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해상풍력 차액계약제도 제7차 할당라운드 입찰결과 발표
캐나다	1.14.	[풍력] 한화오션, 캐나다 해상풍력 경매 참여 준비(4C Offshore)
네덜란드	1.15.	[원유] 베네수엘라산 원유, 미국 정부 요청으로 네덜란드왕국 퀴라소 항구 입항
	1.26.	[풍력] 네덜란드 총리 및 기후정책·녹색성장 장관, 북해 정상회담 참석 : 북해 연안국 간 해상 풍력 에너지 100GW 공동개발 등에 관한 합의 도출
핀란드	1.21.	[전기] 핀란드 에너지기업협회, 핀란드 전기 요금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저렴한 수준이며 향후 수년간 낮은 전기요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Yle)
베트남	1.16.	[LNG] 베트남전력공사(EVN), 광짜(Quang Trach) 2 L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11억 달러 규모 대출 계약 체결
인도	1.14.	[원유] 인도의 12월 대러 원유 수입 전월 대비 29% 감소(The Times of India)
	1.21.	[원자력] 인도 정부, 3개월 내 원자력개정법(SHANTI) 하위 규칙 공표 예정(Economic Times)
필리핀	1.19.	[천연가스] 필리핀 대통령, 신규 천연가스전(약 980억 큐빅피트 규모) 발견 발표 : 말람파야 천연가스전 인근에서 신규 천연가스전 발견

## 「경제안보 Review」 2026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1호 (2026.1.9)	분석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분석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임산호
	현안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최용호
26-2호 (2026.1.23)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유아름
	현안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안수린
	현안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26-3호 (2026.2.6)	분석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황지현
	현안	중국 반도체 굴기 평가 및 업계 현황	안수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